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80권 3호 2023년 8월

vol. 80, no. 3, August 202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80권 3호(2023. 8. 31)

/

차례

기획논문	병든 몸과 사유의 역사		
	신체화된 영혼	이무영	7
	데카르트 심신이원론의 해부학적 토대		
	은폐된 은유	김영욱	35
	장 스타로뱅스키와 멜랑콜리 연구		
	프랑스 현상학과 의학	조태구	67
	질병 가치 적재성 논쟁의 역사적 재구성	박승만	97
	논쟁의 맥락, 주제, 양식의 변화, 1970-2000		
일반논문	일본 아스카(飛鳥)시대 묘제와 장제에 나타난 한반도계 이주민의 영향	권오영	139
	관악산 자하동의 인문경관과 자하 신위	이종묵	183
	남녀 성차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의학적 몸	이기복	215
	조선시대 의학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황윤석(黃胤錫)의 『이수신편』(理藪新編)에 나타난 이수역학의 문화다원론적 독해	엄연석	255
	김억의 「지새는밤」(1930)과 서사시적 상상력의 가능성	조은주	293

	Exploring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Korea's Connections with South Asia Using the Framework of "Mega-Asia"	Ko, Ilhong 325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의 역사와 영성 『순례자 안내서』에 나타난 자선과 환대를 중심으로	손은실 351
	인도주의적 멸절 원주민 아동 동화 정책을 통해 본 미국, 호주, 캐나다의 정착민 국가 건설과 생명정치	김성엽 385
	포스트메모리를 활용한 포스트이주 세대의 정체성 찾기 <알마나: 나의 가족 나의 도시>(2011)	박연영 435
	노모스왕의 권위와 간접권력 비판의 사상연쇄 최인훈 연작 「충독의 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윤인로 471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생태영화 이론 신경미학, 사변적 실재론, 과정-관계 존재론 관점을 중심으로	박제철 501
서평	동맹에서 동반자로, 적에서 동지로 도미엔(2022),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4쪽	윤대영 539
	호메로스의 목소리를 되살리다 이준석 옮김(2023), 『일리아스』, 아카넷, 844쪽	김준서 555
	‘문학을 통해 보는 역사’와 ‘역사를 통해 보는 문학’ 사이의 거리 이행미(2023), 『요동치는 가족: 가족법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의 상상력』, 파이돈, 312쪽	소현숙 565

Journal of Humanities
Vol. 80 No. 3, August 2023

/
Contents

Special Topic: Sick Body and the Humanities

Embodied Soul

The Foundation Medical of Cartesian Dualism

Lee, Mu-Young | 7

The Concealed Metaphor

Jean Starobinski and the Research on Melancholy

Kim, Younguk | 35

French Phenomenology and Medicine

Joe, Tegu | 67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the Debate on the Value-Ladenness of Disease

Changes in Context, Themes, and Format, 1970–2000

Park, Seungmann | 97

Articles

The Influence of Korean Peninsula Migrants on Tombs in Asuka Period, Japan

Kwon, Ohyoung | 139

Cultural Landscape of Jaha-dong in Gwanaksan Mountain and Jaha Shin Wi

Lee, Jongmook | 183

Revisiting the Gendered Medical Body in East Asia

An Examination of Medical Narratives and Cognitive Practices in Joseon Korea

Yi, Kiebok | 215

A Cultural Pluralistic Reading of Mathematical Mechanics in Hwang Yun-seok's

Yisusinpyeon

Eom, Yeonseok | 255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pic Imagination on Kim Eok's "A Sleepless Night (지새는밤)" (1930)

Cho, Eunjoo | 293

Exploring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Korea's Connections with South Asia Using the Framework of "Mega-Asia"

Ko, Ilhong | 325

The History and Spirituality of the Pilgrimage to Santiago de Compostela Focusing on Charity and Hospitality in the *Pilgrim's Guide*

Son, Eunsil | 351

Humanitarian Elimination

Indigenous Assimilation, State Building, and Settler Bio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Kim, Sung Yup | 385

Creating the Identity of the Postmigrant Generation Using Postmemory
Almanya - Willkommen in Deutschland (2011)

Park, Unyoung | 435

Nomos Basileus as Authority and Ideological Chain of Criticism of Indirect Power

Yoon, Inro | 471

Ecocinema Theories in the Age of Posthumanism

Neuroaesthetic, Speculative Realist, and Process-Relational Ontological Perspectives

Park, Jecheol | 501

Book Reviews

From Comrade to Partner, from Enemy to Comrade

Review of *Between Blood Ally and Self-Interest* by Do Thanh Thao Mien

Youn, Dae-yeong | 539

Homerus ipse canat

Review of *Homeri Ilias Translated* by Lee, Joon Seok

Kim, Junseo | 555

The Distance between 'History through Literature' and 'Literature through History'

Review of *The Fluctuating Family: The Birth of Family Law and the Imagin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y Lee, Haeng-mi

So, Hyunsuog | 565

人文論叢

80권 3호

2023년 8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병든 몸과 사유의 역사

철학이 죽음의 연습이라고 쉽게 말할 때면 몸과 병이 인간의 본질에서 부당하게 감춰지곤 한다. 생각은 몸 안에 있으며, 특히 아픈 몸과 함께 혹은 그 곁에서 연마되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이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리 죽음과 직접 만나려 해도 소용없다. 연습은 대개 핑계다. 죽음을 연습하는 동안은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철학은 의학과 유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를 맺었다. 의학 또한 병과 고통을 극복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의학은 죽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솔직히 말하고, 몸과 병을 인간의 본질로 인정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통을 부정하려 한다. 그 보편적 대상, 실천과 함께 의학은 철학과 같은 하나의 사유 형식이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아픈 몸에 대해, 아픈 몸을 통해 생각해 왔다. 그는 고통의 소재지가 된 몸에 맞서는 자신과 타인의 대응을 관찰하고, 비판하고, 전용한다. 사유하는 주체는 병든 몸 곁에, 그곳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 사유 형식으로서 의학의 고유함은 결정적이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몸의 풀리지 않는 교착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살기 때문이다. 몸 없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고통이 없다. 죽음의 연습으로서 철학이 그런 것처럼, 의학 역시 사유가 없는 곳, 사유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곳에서 사유한다. 의학은 역설적 사유이며, 그런 한에서 사유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아래 네 논문은 하나의 기획을 이루기에 너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 심신이원론과 해부학, 멜랑콜리 의학과 문학비평, 프랑스 현상학의 분류와 의학적 함축, 영미권 의철학의 역사적 조건과 질병 개념. 우선 이 산발성이 서구 철학과 문학과 어디를 보아도 의학적 현실과 지식에 연결된 토대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좋겠다. 물론 표본은 부족하고, 각 표본에서 사유가 의학과 맺는 관계는 일정치 않다. 이무영에 따르면 심신이원론과 같은 옛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철학사 작업은 당대 해부학 등 의학적 지식의 고려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 김영옥은 스위스 비평가 스타로뱅스키의 지적 여정을 돌아보며 의학적 멜랑콜리의 역사와 유럽 문화의 본질적 연관을 강조한다. 조태구는 최근 활발한 현상학의 의학적 적용이 조금 더 엄밀한 철학사 작업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승만은 질병 개념과 가치의 관계라는 비역사적으로 보이는 문제의 지성사적 조건을 발굴한다. 누군가에게 철학적 개념의 역사는 의학을 통해 보충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관성의 역사는 차라리 의학사의 이면이다. 한편에서 철학사가 새로운 의학의 정립을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철학사와 의학사의 특정 역사적 접점으로부터 사유의 새로운 분과가 태어난다. 그렇지만 관점은 일치할 수 있다. 사유는 병든 몸을, 병든 몸은 사유를 역사화한다.

이 논문들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에서 발표되었다. 집담회 “의학의 사유”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2023년 6월 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렸다. 네 저자의 이름만으로 집담회의 성과를 종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연금술의 역사라는 귀한 주제를 연구한 박요한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목판화 “매독 걸린 남자”(1496)의 모델은 누구인가?: 뉘른베르크의 점성의학자 테오도리쿠스 울세니우스의 예언 팜플렛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아쉽게 이번 기획논문에 동참하지 못했다. 조만간 다른 지면으로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여인석 교수는 개인적 사정으로 발표와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첫 기획부터 마지막 논문 출판까지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읽는 책 혹은 자신이 일하는

현장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알려 준 여러 인문학 연구자, 의료 현장 노동자가 그곳에 있었다. 많을 수는 없었지만, 뜻밖이었고 경청해야 했다. 발표자들은 질문에 당황한 만큼 지적 호기심을 보충하고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덕에 다시 시작할 대화가 생생히 상상되었다.

김영욱

